

김정은·트럼프 악수 분위기 회담성패 보인다

오늘 북미회담 어떻게 진행되나

사진촬영 뒤 모두발언

단독 회담·확대 회담

공동선언문 발표할 듯

12일 오전 8시30분 싱가포르 시내. 570m 거리 세인트 레지스 호텔과 상그릴라 호텔에서 수십여대 호위 차량에 둘러싸인 김정일 대령 리무진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지나 역사적 출발을 시작한다. 이들 리무진이 남북으로 완전히 통제된 도로를 약 10분간 달려 도착한 곳은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사상 처음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마주앉을 장소다.

이윽고 시곗바늘이 오전 9시를 가리키면, 카펠라 호텔 회담장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들어선다. 아직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순서나 프로토콜(의전) 등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국가 지도자의 상징인 인민복 차림으로 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복 차림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인민복 차림이었다.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역사적 '사건'인 만큼 정상은 회담에 앞서 먼저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순서가 짧은 촬영 순서로 끝날지, 아니면 나름의 우호적 분위기가 연출될지도 관건이다. 이는 결국 양측이 전날까지 이어질 최종 조율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시 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상그릴라 회담에서는 양측이 80초간 손을 맞잡고 인사하며 화기에 애환 분위기를 연출했다.

북미 정상의 첫 만남에선 40살 가까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주요 일정



차이 나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과 손동작, 표정 등 일거수일투족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기 싸움 차원에 꼭 얽여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악수'가 다시 나올지도 관심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또 한차례 '악수 싸움'을 벌여 관심을 끌었으나, '예의를 중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공손한 악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 촬영이 끝나면 두 정상은 테이블에 앉아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회담의 모두발언이 회담 결과까지 어느 정도 고려해 세밀하게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정상의 발언은 회담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결정적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에 진지한지 아닌지는 1분 이내에 알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시작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모두발언이 끝나면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형식상으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통역사만 대동한 채 단독 회담을 진행한 뒤, 이후 각각의 참모들이 합석하는 '확대 회담'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 양측 배석자도 관심사다. 미국 측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배석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의 참석도 점쳐진다.

외교 소식통은 "회담장 출입 순서 등 세부 의전은 두 정상이 최대한 동등하게 보여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싱가포르 측의 중재를 통해 세심히 조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분위기가 시작되면 형식상 회담이 오전 및 오후 회담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오전 회담만으로 끝날지가 관건이다. 다만 이미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양 정상이 대면하는 시간의 길이는 부차적 사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당일 오후 2시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회담이 연장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가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느냐다. 회담 이후 공동선언문 발표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남북 핵합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을 뛰어넘는 구체적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북미정상회담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종료 때의 표정 역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와 관계 없이 북미 정상이 미소를 지을 수 있고 형식적인 악수를 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나름대로 서로 만족할 만한 논의를 했다고 판단되면 속내를 감추지 못한 채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미 예고한 대로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면 '1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으며, 이 장면 역시 사상 첫 북미회담만큼이나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수 있다.

회담장 앞을 지키고 선 세계 각국의 사진기자들은 파격적 행보를 꺼리지 않는 북미 두 정상의 적극적인 제스처를 기대하면서 렌즈를 통해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36> 명장 광자의

광자의(郭子儀, 697~781)는 섬서성 화주 정현 출신으로 자는 자이다. 안녹산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두 번 재상에 발탁되는 등 4대에 걸쳐 조정에 봉사했다.

부친 광경지는 수, 위, 계 등 5주 자사를 역임했다. 안녹산의 난 이전의 군인생활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키가 6척을 넘는 거구였다고 전해진다. 749년 내몽고 요원현 형새군 군사로 임명되고 좌위대장군에 배임되었다. 755년 59세때 안녹산의 난이 일어났다. 난이 발생하자 안녹산의 일족인 삭방절도사 안사순 대신에 절도사에 발탁되었다. 삭방절도사는 10명의 절도사 중 군사력이 4번째에 달하는 요격이었다. 안녹산의 대군사 고수임을 격파하고 대동병마사 설총의가 산서성 정병군을

을 시작하였다.

763년 토번이 변경을 침략했다. 조정이 놀라 용왕 이괄을 관내원수로 광자의를 부원수로 삼아 함양에서 방어케 하였다. 함양에서 모은 병사가 수백에 불과했다. 토번은 장안을 공격했다. 대장은 장안을 떠나 섬주로 피신했다. 토번은 광무왕 이승광을 황제로 옹립하고 우가봉을 재상으로 삼았다. 그는 간신히 4천의 병력을 모았는데 20만명에 달하는 토번군을 장안에서 쫓아내는 계책을 꾸렸다. 토번군을 측면에서 교란하고 당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문을 퍼뜨려 토번군이 장안에서 철수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는 경성유수가 되어 수도의 치안 회복에 나섰다. 토번의 장안 침공을 막은 그의 공적은 실로 대단했다. 그러나 정원진이 토번의 위협을 막는다는 이유로 낙양천도 대동병마사 설총의가 산서성 정병군을

안녹산의 난 평정 큰 공

공격해오자 대파해 공으로 어사대부를 겸하게 되었다. 756년 낙양과 하북을 탈환할 것을 명받았다. 이광필을 추천해 그를 하동절도사로 삼았다. 둘이 군사를 모으니 총병력이 10만에 달했다.

안녹산의 부장 사사명을 하북에서 격파했다. 하북성 박통을 장악해 안녹산이 낙양에서 고립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재상 양국충의 오판으로 장안의 외곽인 동관이 돌파되면서 전황이 다시 반전됐다. 현종은 사전으로 피난을 갔다. 대신 재위에 오른 숙종 아래서 하동부원수가 되어 숙종의 아들 광평왕 이숙과 함께 회흘과 연합해 수도 장안 회복에 성공했다. 그 공적으로 증서령이 되고 후일 분양군왕에 봉해졌다.

이후 어조은의 참소를 받아 1년 이상 장안에 머물며 군사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오랜 전란으로 재정이 고갈

한 건 인재를 잘못 써서이지 지리적 위치가 나빠서가 아니다"고 반박해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복고회은이 반란을 일으켜 회흘, 토번과 연합해 당을 괴멸했다. 이광필이 이미 세상을 떠나 그만이 난을 막을 수 있었다. 그는 대종에게 "복고회은은 본래 신의 부하였으므로 차마 서로 칼끝을 겨누지 못할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몇 차례 남하하는 와중 복고회은이 진중에서 병사했다. 그는 회흘과 직접 담판을 지어 협상을 성공시켰다. 결국 회흘과의 동맹과 토번의 패배로 복고회은의 난이 마무리되었다.

대종이 봉어하는 799년까지 당 왕조의 운명은 사실상 그의 양 어깨에 달려 있었다. 대종의 딸 승평공주가 여섯째

아들 광애와 결혼하니 황제와 사돈지간이 되었다. 새로 즉위한 덕종은 그를 상보로 높여 불렀다. 실봉은 2천호까지 늘려주고 자식과 사위들 10여명의 관직을 승진시켜 주었다. 그가 가진 군권은 이회광, 삼경광, 훈강에게 귀속되었다. 781년 그가 죽자 조정은 5일간 휴무하였다. 상여가 지나가자 덕종은 안복문으로 나가 곡을 하였다. 시호는 충무다. 8명의 아들과 7명의 사위가 모두 입신출세 하였다. 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해 뒷날 부귀공명의 상징으로 존송받았다.

日 언론 “미국, 일본에 플루토늄 감축 요구”

핵무기 6천개 생산 가능량 보유 “북한 등과 형평성 고려할 듯”

미국 정부가 일본에 플루토늄 보유량을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1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등은 일본 정부에 플루토늄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유량에도 상한을 설정해 감축 대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보유량 증가를 억제하는 상한제를 도입해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플루토늄 관리를 담당하는 일본 원자력 위원회는 현재 수준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이르면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지아는 플루토늄이 핵무기 원료로도 이용된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핵 비확산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일본의 보유량 증가를 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폐연료봉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이지만,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과 함께 사용하면 고속중성자로 방식의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토대로 플루토늄을 다시 핵발전소에 이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이 이미 보유 중인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47t에 달하며, 일본 국내의 원자력 관련 시설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에선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운전 중단, 현재까지 재가동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플루토늄을 연료로 재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니혼게이지아는 미국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을 강조하는 가운데 일본만 특별 취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